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8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이재근(044-203-5690), 박근형 사무관(5692)

산동성, 한국기업의 진출 통로가 된다.

- 산업부-산동성 통상협력 강화 양해각서(MOU) 체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산동성이 통상협력 통로를 마련했다.

○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.26.(수) 서울에서 궈슈칭 산동성장과 면담을 하고, 통상협력 강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* 일시·장소: 8.26(수), 17:00~18:00/서울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

○ 양해각서는 경제·통상·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괄적으로 명시했고, 서로 고위급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 했다.

* 광동성, 섬서성, 사천정부가 성에 이어 중국 지방정부와의 4번째 경제·통상 협력채널 구축

□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동성, 섬서성, 사천성, 산동성 4개 중국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력망을 만들었다.

○ 광동, 섬서, 사천, 산동 4개 성시는 중국 총교역의 약 40%를 차지하고 있어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의 효과 극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산동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, 제3의 교역대상지역이다.

* 한국의 산동성 투자법인수: 7,921개(중국전체(24,251)의 32.7%, 31개 성시중 1위)
* 한국의 산동성 투자액: 130억 달러(대중 투자액(661)의 19.7%, 강소성(139)에 이어 2위)
* 한-산동성 교역액: 352억 달러(한중 교역액(2,907)의 12.1%, 광동성(729), 강소성(610)에 이어 3위)

□ 윤 장관은 "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시 산동성과의 교역 및 산업 협력 확대가 예상되며, '한-중 산업단지'를 활용한 투자 협력 활성화도 기대된다."라고 평가했다.

○ 아울러, 산동성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산동성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여 중국 진출 우리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기회도 마련했다.

□ 궈 성장은 "한-중 산업단지 협력이 한국과 산동성간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보며, 동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역·투자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." 라고 화답했다.

○ 아울러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협력 장(챕터)에 근거해서 '인천경제자유구역'과 '위해시'간에 시범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어, 이 사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체결한 '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(MOU)'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.

* "한중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('14.7월 체결)" : 양국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
* 산업부는 지역통상 활성화 양해각서(MOU) 체결이후, 사천성('14.7, '15.5), 산동성('14.9), 염성시('14.10), 귀주성('14.11), 광동성('15.1), 연변자치주('15.3), 광시자치구('15.4) 등과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음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이재근(☎044-203-5690), 박근형 사무관(☎ 044-203-56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